

7월 11일 인이협 뉴스레터

소리통

인의협's Opinion

[인의협][보건의료단체연합][성명]

백남기 농민 '외인사'에 책임 있는 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작년, 故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직후, 사망진단서작성이 '병사'가 아닌 '외인사'로 표기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고 9개월이 지난 6월에 서울대병원에서는 병사로 수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성명서입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의협][성명] 서울대병원은 외인사로 한 번 죽고 병사로 두 번 죽었다.



서울대병원의 故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수정 시기와 방법, 그리고 후속 절차가 부적절했음을 비판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성명서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의사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News Review

언론속, 인의협회원

[오마이뉴스] 뒤늦게 '외인사' 인정한 서울대병원, 정치적 고려 맞다

[주장] 유가족 대응으로 사망 264일 만에 사망진단서 수정... '역사적 오명'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고 밝힌 가운데, 그간 이 문제를 꾸준히 지적하며 책임자 처벌을 주장해온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사무국장의 기고.

▶ 뉴스보러가기

[한국대학신문] 국립대병원 공공성 회복하려면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해야 맞다

- 19일 국회 '국립대병원 공공성 역할 강화' 토론회



민주노총 공공우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주최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참여.

▶ 뉴스보러가기

[(주)피디엔] 서울시, 의료취약계층 외국인주민 무료진료...평일 야간까지 확대



“서울시 서남권글로벌센터 의료취약계층 외국인주민 무료진료는 2013년 첫 진료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 치과, 내과, 재활의학과, 한방과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양방진료의 경우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소속 의료진과 개인 전문의 등으로 구성돼 전문적인 진료서비스가 가능”

▶ 뉴스보러가기

[매일신문] [의창 醫窓] 의원정심규제(醫員正心規制)



매년 첫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의원정심규제를 읽는다. 이 규범은 ‘의사의 도리는 정직하게 진료함’이라고 명확히 밝힌다. 또한 ‘빈부고하로 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의학자는 교만을 버리고 성스러운 마음으로 환자를 대해 세상의 존경을 받아야 하며 치료를 빙자하여 다른 것에 이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중략) 오늘도 진료실로 향하며 ‘의원정심규제’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본다.

▶ 뉴스보러가기

[경산신문][칼럼] 치매 국가책임제

“치매 국가책임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부를 창출하는 성장동력이라는 기존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국민 전체의 보편적 복지를 보장해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김진국(대경인의협) 생명문화연구소장

▶ 뉴스보러가기

[영남일보][이 사람] 이종우 대구경북 전문직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출



그는 “의사가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사회의 질병과 부조리에도 눈을 감아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개인적으로 의료로 문화활동을 하는데 전단협도 각 단위별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다. 전단협이 어떤 형태로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 뉴스보러가기

인의협 활동보고

진료사업 운영 방향 간담회 - 일시: 2017년 6월 26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남도한식정든님



6월 26일 (월) 시청 부근에서 '진료사업 운영 방향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역(남대문)진료소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진료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금 잡아 재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가려 합니다. 진료사업에 대한 견해들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석자: (가나다 순 / 존칭생략) 강아름, 김철주, 김현숙, 나백주, 백남순, 이미옥, 이보라, 이현의, 장영우, 정형준, 한애라 총 11명]

진료소 활동 - 진행날짜 : 6월 2일, 9일, 16일, 23일, 30일(동대문)
6월 4일(서남권 글로벌센터)
- 6월 참여 선생님 : 이석영, 장연식, 조홍신, 추대현, 형재원(동대문)
강양원, 정형준(서남권 글로벌센터)
- 6월 환자 수 : 62명 (동대문)



〈동대문진료소〉



〈서남권 글로벌센터〉

국제보건세미나

- 일시 : 2017년 6월 30일 저녁 7시 반
- 장소 : 인의협 강당



6월 국제 보건 세미나는 김진숙(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 사무관)님을 모시고 '북한 의약품 정책의 특징과 한계'라는 주제로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와 공동주최했습니다.

교육과 의료의 무상시행은 사회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들에게 가장한 부분인 만큼 북한 역시 무상의료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등으로 인해 고질적인 의약품 부족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와 함께 다른 나라와의 교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도 의약품지원 사업 등에 있어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효과가 있는 지 등을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 지원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색되어있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바라며, 남북의 의료교류도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참석자: (가나다 순 / 존칭생략) 강아름, 김나연, 김정은, 박세현, 백재중, 유기훈, 이미옥, 장영우, 정영진, 정일용(인의협) / 정진미(건치) / 엄주현, 이승지, 한상규(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총 15명]

기자회견 참석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바란다'
- 6월 21일 (수) / 강아름, 이미옥, 정형준 참석



6.30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지지 기자회견
- 6월 29일 (목) / 김정범, 이미옥 참석

대구 · 경북 인의협

대경인의협 야유회



6월 17일 토요일 대구인근 청도 추호식 회원집에서, 대경인의협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폭염경보문자를 울린 날씨답게(?) 가만히 서 있어도 등에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더운 날씨속에서도 많은 회원분들과 가족분들과 함께 닭백숙도 먹고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군위축산농가 산재사망 관련활동



지난 5월 12일 군위 축산농가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다 2명의 네팔노동자가 황화수소에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분 중 한 분은 네팔영사관 주관하에 네팔로 보내드리고, 다른 한 분은 가족분이 지난 6월 9일 한국에 입국하셔서, 6월 15-18일 늦게나마 돌아가신분의 빈소를 마련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경인의협이 속한 이주연대회의에서 함께 빈소를 문상객을 받고,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부산 · 경남 인의협

'서부산의료원 건립과 공공병원의 바람직한 역할' 토론회



6월15일 '서부산의료원 건립과 공공병원의 바람직한 역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정명희 부산시의원과 사회복지연대' 주최로 열렸습니다.

윤태호 부산의대 교수님이 사회를 보고, 김창훈 부산대병원 공공의료사업실장님이 발제를 했습니다.

성주 '소성리' 평화농활 참가



6월17일~18일 성주 소성리 평화농활에 의대생들과 인의협 선생님들이 참가했습니다. 임정균, 송지훈, 김영준 선생님이 참가했고, 고신의대 2명, 단국의대 1명 학생들도 참가했습니다.

통일의료모임



6월20일 통일의료모임을 했습니다. '통일의료' 책 4장을 공부했습니다.

정운용, 김종목, 노동현, 김환수, 정문용, 김호영, 김책 선생님이 참가했습니다.

대전 · 충남 인의협

6월 14일 머쥬모임



6월14일 머쥬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머쥬모임에서 함께 나눈 책은 『지리의 힘』 (팀 마샬 저)입니다. 지리가 우리의 삶과 역사 그리고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6월 18일 대전지회 나들이



6월 18일 대전지회 나들이를 진행했습니다.

공주 갑사로 나들이를 진행한 후, 김삼용선생님 댁에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6월 24일 탈핵집중행동 의료지원



6월 24일 대전 원자력연구원 앞에서 탈핵집중행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인의협 대전지회에서는 의료지원으로 함께했습니다.

신입회원 소개:D



Q. 소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턴, 전공의를 수료한 후 현재는 대전 민들레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Q. 인의협에 가입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4년 전 대전에 처음 내려왔을 때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이라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인의협 선생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고, 대전 인의협의 책임기 모임인 '머쥬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첫날 다윈의 진화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고, '와, 의사들끼리 모여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니 정말 좋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떤 엉뚱한 질문을 해도 다 진지하게 답해주시고, 개인적인 고민이나 생각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소중한 모임이 되었고, 지속적으로 모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대전 인의협 선생님들의 인품에 반해 가입까지 하게 된 것이지요.

Q. 인의협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아직은 제가 부족해서 거창한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다만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도 저의 시야를 넓혀나가고 싶습니다.

Q. 선생님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선생님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또, 그 이유는요?

야옹선생이요. ㅎㅎㅎ 제 필명입니다. 저는 만화를 좋아해서 지금도 하루의 시작을 웹툰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평소 취미삼아 끄적거린 만화를 프레시안에 연재하게 되었고 얼마 전 ‘엄마의사 야옹선생의 초록처방전’ 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다보니 아이들의 건강에 관심이 많아 어떻게 하면 근거중심으로, 적정수준의 진료를 하고 또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한 내용들이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 넵 물론 고양이도 좋아합니다. ^^

Q. 앞으로 선생님은 어떤 의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즐겁게 일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더라구요. 첫째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합니다. 둘째는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 또 매일 만나는 환자분들과 서로 신뢰하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하고 즐거워야 하겠지요. 이 세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땅에서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인의협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대전 인의협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까약~ 저 뉴스레터에 나왔어요!!

Coming Soon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 사업광고입니다^^

의대생 피스로드 여름캠프

평화와 생명을 지키는 의사를 찾아서!

7.13~7.15

DETAILS

1. 본 기행 : 7.13~7.15

2. 세부 일정

첫째 날 : 안산 - 4.16 기억교실 & 안산 온마을센터 방문

서울 - 반올림 농성장 방문

둘째 날 : 서울 - 녹색병원 견학.

녹색병원 보물찾고, 보건의로 바로알자!

셋째 날 : 성주 소성리 방문 - 평화와 의사

3. 참가비용 : 5만원

함께하는 사람들



성주 호 토양병원 노태명 선생님
성주 의사는 왜 식별을 했을까?
의사가 사태의 아픔에 반응하는 법



독석병원 이보라 선생님
세월호 가족, 노동자, 노숙인과 함
께하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인하대 의학교육학 최규진 교수님
거의의 의사, 역사 속의 보건의료
인물 연구하다!



부산 경남 인의협 대표 정운동
선생님 - 사회적 존재로서 의사
의 역할은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 보건 의료 정책의 전망



강사 : 정형준 인의협 정책국장

일시 : 7월18일(화) 저녁 7시30분

장소 : 서면 모임공간 '텐스'

(부산시 진구 부전동 156-1,

051-804-1010)

주최 :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제 7회 인의협 의대생 캠프

의대생, 나가사키 그라운드제로에 가다

후원계좌 : 512-093237-01-110(우리은행)
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타문의 : 02)766-6027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1. 일정_ 8월 6일(일) ~ 8월 11일(금) 5박 6일

<p>8월 6일 일요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7시 25분 출발(8시 45분 나가사키 공항 도착) - 호텔이동 - 견학 등(하루 종일)
<p>8월 7일 월요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 : 견학 등 - 오후 : 원·수폭 금지 세계 대회 개회식 - 밤 : 나가사키 의대생 등의 교류
<p>8월 8일 화요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 : 견학 등 - 오후 : 피폭자와의 간담회 - 밤 : 민이렌 교류회
<p>8월 9일 수요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 : 원수 폭 금지 세계 대회 폐막식 - 오후 : 藤末 회장 간담회 및 견학
<p>8월 10일 목요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 : 군함도 방문 - 오후 : 견학
<p>8월 11일 금요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가사키 공항 9시 45분 출발 (11시 10분 인천공항 도착)



2. 사전 세미나 계획

7월 15일 토요일	3:00-4:30 4:50-5:50	강의 - 인의협 의 역사와 활동(인의협 공동대표) 책 - 흥터의 꽃(김옥숙, 세움)
7월 22일 토요일	3:00-4:30 4:50-5:50	강의 - 민이렌의 역사 「차별없는 평등의료를 지향하며」의 역사, 박찬호 책 -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민족문제연구소, 생각정원)
7월 29일 토요일	3:00-5:50	책 - 고쳐 쓴 한국현대사(강만길, 창비)中 제 1부, 식민지배와 민족해방운동의 추진

**세미나 이후, 뒤편이도 진행합니다^^

3. 영화 '군함도' 관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군함도의 또 다른 이름 '지옥섬'.

조선인 강제징용의 대한 역사는 지우고, 일본 제국주의의 화려했던 역사만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면, 과거에 대한 반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번 나가사키 캠프에서는 '군함도'를 방문합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올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일정은 추후공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의협회원 여러분

저는 이번 과분하게도 인의협 30주년 기념사업회 준비위원장을 맞게 된 염석호입니다.

올해 인의협이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만큼 3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인의협 30주년 기념 책자'를 발간하여 회고와 전망으로의 30년, 근대의학 도입기부터 의사의 대사회적 역할, 특히 6.10항쟁 시기의 인의협의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의의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집필은 의사학을 전공한 최규진 선생님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책자 발간사업과 더불어 북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0주년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만나기 어려웠던 여러 선생님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인의협의 미래를 그려갔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인의협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볼 수 있는 영상제작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건강 불평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리라 보고 외국의 저명한 석학들을 초빙하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려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30주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 선생님에게 간곡히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사정을 잘 모르고 부탁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첨부하는 파일을 보시고 후원해 주시면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의협 30주년 기념사업회 준비위원장 염석호 드림.

인의협 창립 30주년

30th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를 통해 다시금 재도약 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인의협 30년사 책자발간

 인의협 창립 30주년 기념식
일시 : 2017. 11. 18 (토) 오후 7시
장소 : 서울 여성프라자

 인의협 창립 30주년 국제 학술대회
일시 : 2017. 11. 21 (화) 오후 3시 반 ~ 오후 9시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403-018093

후원금액

30만원/50만원/100만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